

### 조선시대 '임진자' 밀랍주조법 제작

#### 국립중앙박물관 최초로 밝혀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금속활자가 최초로 확인됐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최광식, 이하 박물관)은 3월 9일 조선시대 금속활자 '임진자'가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것으로 밝혀졌다고 발표했다.

특히 밀랍주조법은 현존 최고 금속활자 인쇄물인 <백운화상불조직심재요점(지지심경)>의 제작법으로 주장됐지만, 문헌 부재 등의 이유로 반론이 제기돼 이번 발견은 더욱 큰 의미를 갖는다.

박물관 박학주 금속보존담당자



밀랍주조법으로 제작된 금속활자 '임진자'.

라 분류할 수 있게 돼 복원사업 등 연구 분야 연구 촉진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임진자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금속활자로, 임진년(壬辰年)인 1772년(영조 48)에 주조한 활자다. 왕희지가 글씨를 배운 진(晉)나라 위부인의 글씨체를 닮아 위부인자(衛夫人字)라고도 일컫어진다.

김진성 기자

(보존과학팀)는 "이번 발견은 금속활자 형상과 주조 결합의 상관관계를 통해 금속활자의 주조법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금속활자를 제작방법에 따라

### 백제 임강사지 두 번째 발굴 조사 착수

#### 국립부여박물관, 가람배치 확인 기대

백제시대 사찰터로 알려진 임강사지(臨江寺址)에 대한 두 번째 발굴조사가 시작된다.

국립부여박물관(관장 권상열)은 3월 4일 임강사지 발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임강사지는 호암사지, 왕흥사지와 함께 백파강변에 위치한 사지로 1964년 동국대학교 박물관에 의해 발굴조사된 후 1982년 충청남도 기념물 제34호로 지정됐다. 또한 2006년 충청남도 부여군의 공동 지표조사에서 사지

가 현 지정구역보다 훨씬 넓은 범위에 분포했던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다.

국립부여박물관 윤용희 학예연구사는 "임강사지는 임지와 규모로 볼 때 백제시대의 매우 중요한 사찰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첫 조사 이후 현재 유적이 온전히 보존돼 있는만큼 이미 조사된 건물터의 성격 규명 및 주변지역 시굴 등을 통해 가람배치 확인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한국 근대불교 자화상'을 말하다

#### 보조사상연구원 3월 21일 월례학술대회

보조사상연구원(원장 법산)은 3월 21일 오후 2시 동국대 다량관 세미나실에서 제84차 월례학술대회를 개최한다.

'한국 근대불교의 자화상'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는 정도 스님(동

국대 외래교수)이 '경봉 선사와 근현대 선사 교류 고찰'을, 한동민 외래교수(중앙대 한국사학과)가 '일제강점기 안진호 스님과 사지 편찬'에 대해 발표한다. (02)733-5311

조동섭 기자

## 부처님 돈 벌고 쓰기도 코치

### 박경준 교수 '불교평론' 기고

돈이 문제다. 서민들은 물론 나라도 돈가뭄을 겪기는 마찬가지. 시중에 달러가 없으니 환율이 치솟았고, 금을 찾는 사람이 많으니 금값이 천정부지다. 작금의 경제 위기는 금융공황이다.

불교는 무소유를 말한다. 돈이 생명줄인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버리고 잊자니 당장 불편이 이만저만하지 않을 것 같다. 모두가 공업 증생이다 보니 나 하나만 잘한다고 위기가 사라질 것도 아니다. 부처님은 돈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셨을까?

박경준 교수(동국대)는 계간 <불교평론> 제38호에 기고한 '돈에 대한 불교의 가르침과 역사적 전개'에서 지혜를 강조했다. 박 교수는 <태라가타>를 인용해 "지혜로운 사람은 설명 재산을 잃는다 해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지만, 지혜가 없는 부자는 지금 한순간도 진정 살아있다고 할 수 없다"고 말했다.

부처님은 출가자와 재가자의 경제주체에 따라 다른 입장을 보였다. 출가자에게는 모든 세속적 직업으로부터 벗어날 것과 돈과 귀금속의 소지를 금지했다.

박경준 교수는 <사분술>에 금돈 은돈 쇠돈 구리돈 나무돈 등 8가지 화폐이름이 열거된 것을 볼 때 부처님 당시에는 화폐 사용이 보편화됐다"며 "비구가 제 손으로 금·은과 돈을 잡거나 받으면 사타(捨墮)죄에 해당했다. 부득이한 경우 출가자를 돕는 공



박경준 교수.

인된 재가불자(淨人)를 통해 돈을 유통시켰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과 한국에 이르러 출가자도 돈을 소유할 수 있다는 '금은정(金銀淨)' 입장이 대세를 이루게 됐다.

부처님은 재가자에게는 경제 활동을 적극 권장했다. <앙굿타라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재가자들이 재산의 획득과 증식에 관심을 가져야 할 것과 재산을 획득하고 증식하는 방법의 옳고 그름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것을 강조했다. 특히 부처님은 "먼저 기술을 배우고 난 뒤에 재물을 구하라"며 재산 획득과 증식의 요령도 설명했다.

<선생경>에서 사분법(四分法)을 설명한 부처님은 재가자에게 재테크 방법까지 일렀다. "재물을 구한 다음에 이것을 넷으로 나눠 △1/4은 생계(食費)에 쓰고 △1/4은 생산비로 쓰며 △1/4은 저축해 위급에 대비하고 △1/4은 경

작인 등에게 빌려줘 이자를 창출하도록 하라."

박 교수는 "소득의 1/4을 타인에게 빌려줘 이자를 창출하라는 부처님 가르침은 이자 수입을 금기하는 <성서>와 비교되는 놀라운 일"이라고 말했다.

부처님은 왜 돈을 벌라고 하고 늘리는 방법까지 코치했을까? 박경준 교수는 "불교적 입장에서 돈을 버는 일도 중요하지만, 돈을 어떻게 쓰느냐는 더욱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초기경전에서는 돈을 부모 자식 친구 등 타인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 재년에 대비하고 상속을 준비하며 재산 보전을 위해, 왕과 신에 대한 의무와 성자를 공양하기 위해서 써야 한다고 가르쳤다"고 설명했다.

박경준 교수는 "오늘날 지구적 경제 위기는 비대해진 몸집과 넘쳐나는 거품으로 야기된 현상"이라며 "적절한 물질 충족은 정신적 충족의 필요조건이지만 필요 이상의 물질은 우리의 정신을 황폐화해 행복을 감소시키고 고통을 증가시킨다"고 강조했다.

한편 <불교평론> 제38호에는 '종교와 돈'에 관한 △인제대학교 교수(대진신학대)의 '돈에 대한 기독교의 가르침과 역사적 전개' △이화중 대표기자(미디어부)의 '한국 불교의 시주 현황과 용도', △서명창 교수(가톨릭대)의 '한국 불교의 현금 현황과 용도', △정웅기 사무처장(종교자유행행연구원)의 '종교인 면세특권 그 기원과 현황'이 게재됐다. (02)739-5781 조동섭 기자

### 개혁불교, 선농쟁 반성기조서 '인태'

#### 송묵 스님 논문 눈길

18~19세기 초 삼종선과 이종선의 다름으로 표현되던 백파와 초의의 논쟁은 진귀조사설을 비롯해 교의 별전 전신법요 해석 문제 등을 다뤘다. 한 세기에 걸쳤던 백파계와 초의계의 수행논쟁이 박한영 등 근대 불교계 인물에 의해 불교정체성 확립운동과 시대사회적인 자각운동이라는 주장이 있어 눈길을 끈다.

송묵 스님(남양주 동원정사 주지)은 최근 원광대 박사학위 논문 '조선 후기 불교 선수행논쟁에 관한 연



송묵 스님.

구'에서 "근대사조 변혁기에 이르러 선농쟁에 자기반성 사조가 일면서 개혁불교의 원류를 이뤘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선농쟁은 조선조 억불승유에 따른 불교적 생존양식이었다"며 백파선맥을 이은 박한영 등을 중심으로 선법개혁운동을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 백제 절터에서 고려건물지 발견

#### 능산리사지 현장설명회

백제시대 절터 부여 능산리사지(사적 제434호)의 범위와 성격이 새롭게 밝혀졌다.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 이종철)는 3월 11일 부여 능산리사지 발굴조사 현장설명회를 개최했다. 한국전통문화학교는 부여군의 의뢰로 2008년 11월부터 제11차 능산리사지 발굴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사찰(寺域) 서편에서 나성(羅城) 도성을 둘러싼 외곽의 성으로 이어지는 경사면의 성벽 만곡부(彎曲部)의 활모양으로 굽은 부분 일대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조사결과 나성 성벽 만곡부의 안쪽(능산리사지 기준)은 성토대지

로 조성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외에도 고려시대 건물지와 백제 석렬 유구, 배수로, 기와 가마 등이 발굴됐다.

고려 건물지는 나성 만곡부 안쪽 평탄지에 위치하며, 백제 성토대지 위에 축조됐다. 또한 기와 가마는 연소실과 소성실 벽을 모두 돌로 쌓은 형식으로, 백제 사비시대 가마 중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형식이다.

한국전통문화학교 정치영 전문위원은 "그동안 부여능산리사지에 대한 조사가 백제를 중심으로 이뤄진 만큼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 건물지를 확인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백제시대 기와 가마 역시 본격적인 내부조사가 이뤄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김진성 기자

###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 출간

#### 종교교육·문화 담야

불자-기독교자교수협의회를 통해 종교간 화합에 앞장서 온 김용표 교수(동국대), 김은규 교수(성공회대)가 여러 종교학자들과 함께 종교문화와 종교교육에 관한 담론을 엮어 책으로 출간했다.

<초월과 보편의 경계에서>(동국대출판부 펴)는 제1부 '종교와 교육의 본질을 말하다'에서 종교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자유, 평화, 중

교성을 중심으로 다뤘다. 제2부 '종교, 문화, 교육을 논하다'에서는 한국의 종교문화 현실에 투영된 종교 전통의 교육적 특성을 소개했다.

김용표 교수는 "매일매일 축적할 것을 가르치는 교육과 매일매일 버려야 할 것을 가르치는 종교가 서로 상충하는 듯 보일 수 있다"며 "쌓는 것과 버리는 것이 상호존재이듯 교육과 종교는 상호보완을 통해 인간의 완전함을 충족시킨다"고 말했다. (02)2260-3482 조동섭 기자

### 부인사터 사적지정 추진

#### 3월 7일 공청회 열어 타당성 검토

초조대장경을 보관했던 대구 부인사터의 사적지정이 추진된다.

대구 부인사(주지 종진)는 3월 3일 통일신라시대 장건된 '부인사터'의 사적지정을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부인사측은 사적지정과 관련해 7일 일일화선원에서 '부인사 사적 지적

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부인사의 역사와 문화 등을 집중 발표·토론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주보돈 교수(경북대)와 김성구 학예관(국립중앙박물관), 이강근 교수(경주대), 김상영·최태선 교수(중앙승가대) 등이 참여해 사적 지정 필요성과 타

당성 등을 검토했다.

종진 스님은 "부인사터는 현재 대구시 지정기념물로 지정됐음에도 불구하고 훼손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국가 사적지 지정을 통해 훼손을 막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부인사에 보관했던 초조대장경은 1232년 몽골군 침입 때 불탔으나 사적 지정 후 부인사터 전체의 발굴조사가 진행되면 대장경 소실에 관한 흔적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 빙의 퇴마 최면을 전수합니다

**빙의 치유**

- 영을 직접 불러 누구인지? 무슨 원인인지? 소원이 무엇인지? 천도

**전생체험**

- 원통한 인간의 인과 응보와 원인을 찾아 업장을 소멸하고 사업자 사업자에게 사업성취를, 기도자는 기도성취를, 원인모를 약질증상 등은 좋은 운으로 돌릴수 있습니다.

**치유가능한 증상들**

- 빙의(귀신병), 퇴마, 우울증, 공황장애, 대인공포, 불안공포, 불면증, 만성두통, 게임중독, 약물중독, 급한성격, 집중력, 성적향상 등등
- 빙의, 퇴마, 최면을 배우실분
- 자기최면, 타인최면을 배우실분
- 자녀들의 성적향상을 위한 부모님
- 포교활동에 꼭 필요하신분(성직자 특별우대, 종교불문)

- 전수를 받고자 하는 분들은 대체의학, 최면, 빙의, 퇴마 등을 한곳에서 전수가능하며 전수 후에 각 시도 지사도 가능함.
- 최단기간 실전교육
- 최면기술 누구나 가능합니다.
- 어디 아프세요. 불치병 몽땅 상담하세요.
- 하는 일마다 안풀리세요. 당신의 사주를 바꾸세요
- 빙의(귀신병) 퇴마, 최면? 100% 전수 - 치유
- 우울증, 공황장애, 산소수맥
- 임신부 무통분만

한국 빙의 퇴마 최면 연합회 본부 **지 장 사 현오 합장**

HTTP://WWW.JIJANGSA24.ORG

서울지사 : 보광사 H·P 016-9511-0840

● 서울교육 : 연중무휴

부산지사 : 부산광역시 북구 화명동 1388-8  
(부산 지하철 2호선 화명역 2번출구 전자랜드 후문 앞)

☎ 051)364-5586 / H·P 010-3056-3315

● 부산교육 : 연중무휴 (숙식가능)

※ 전국 지사 모집  
지속적인 광고지원